



**환호하는 현대건설** 2일 충북 제천 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 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현대건설과 GS칼텍스와의 조순위 결정전 경기, 현대건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최진한 감독, 中2부리그 내이명구 사령탑**

최진철·이운재 코치 등도 함께 영입



최진한 감독. /캡처=내이명구 중여우 웨이보

중국 25세 이하(U-25)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최진한(59) 감독이 중국 갑급리그(2부) 내이명구 중여우 사령탑으로 부임한다.

중국 매체 즈보바는 1일(현지시간) "최진한 감독이 내이명구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됐다"라고 보도했다.

내이명구는 최 감독과 함께 중국 U-25 대표팀에서 함께했던 최진철 코치와 이운재 골키퍼 코치도 함께 영입했다.

또한 신상규 전 FC서울 트레이너와 임현택 전 국가대표 의무팀장도 데려왔다.

2011년 창단한 내이명구는 지난 시즌 중국 2부리그에서 7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중국 U-25 대표팀에 부임한 최 감독과 코치진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귀국했다.

이후 새로운 행선지를 물색하던 중 내이명구가 러브콜을 보내 계약이 성사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트레이너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던 최진한 감독은 프로축구 K리그 대구FC, 전남 드래곤즈 수석코치를 거쳐 경남FC, 부천FC를 지도한 바 있다. /뉴스시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mae.co.kr

**김광현 데뷔 첫 선발 4경기 'ERA 0.44'**

MLB 역대2위...시즌 2승째 수확  
신시내티전 5이닝 3피안타 2볼넷 무실점 '쾌투'

'제 옷'을 입은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김광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드와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을 3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진은 4개를 빼앗겼다.

팀이 16-2 대승을 거두면서 김광현은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1.08에서 0.83까지 떨어내렸다.

선발만 놓고 보면 더 대단하다. 김광현은 선발로 나선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44(20%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전무후무를 펼쳤다.

야구 통계업체 스탯즈는 "평균자책점을 공식 집계해 1913년 이후 김

광현보다 첫 선발 4경기 평균자책점이 낮은 좌완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0.25)뿐"이라고 전했다.

1980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페르난도는 1981년 13승(7패)을 올리며 주축 투수로 발돋움했다.

그해 사이영상과 신인상을 모두 품었다. 1997년까지 빅리그에서 뛰며, 통산 453경기 173승153패 평균자책점 3.54의 성적을 남겼다.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한 김광현은 올 시즌을 앞두고 포스트시즌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미뤄지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지만, 빼어난 피칭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언론 KSDK의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2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드와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다.

코리아 밀러 기사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김광현의 2020 내셔널리그 신인

상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면서 치켜세우기도 했다. /뉴스시스

**'절대 1강' 흥국생명 전체 1위로 4강 입찰**

'절대 1강' 흥국생명의 파죽지세는 계속된다.

흥국생명이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에서 3연승을 질주했다.

흥국생명은 2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조별리그 순위결정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3-0(25-16 25-20 25-22) 완승을 거뒀다.

앞선 A조 조별리그 2승을 챙긴 흥국생명은 한국도로공사마저 누르고 3연승에 성공했다. 세 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 여자부에서는 최초로 조별리그 순위 결정전을 운영하고 있다. 조별리그와 순위결정전 등 총 3경기를 치른 뒤 성적에 따라 상위 4개팀이 준결승에 입하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전체 1위로 4강에 진출, 4위로 막차를 탄 현대건설과 4일 결승행을 놓고 격돌한다. 자연스레 또 다른 준결승 대진은 KGC인삼공사-GS칼텍스전으로 확정됐다.

**한화 2군 선수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다'**

2명 확진 나머지 95명 전원 '음성' 판정  
한화 확진자 선수와 밀접 접촉자 59명 자가격리



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한화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전만다행이다. 한화 이글스 퓨처스(2군) 선수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화 2군 선수단 및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

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 조사에서 8월31일과 9월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육성군 선수 2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한화는 최초 확진 된 선수 포함 97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전날(1일) 추가 확진된 선수까지 2명을 제외한 9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25-26일 서산구장에서 한화와 경기를 치른 LG 트윈스 2군 선수단도 진단검사를 실시, 대상자 61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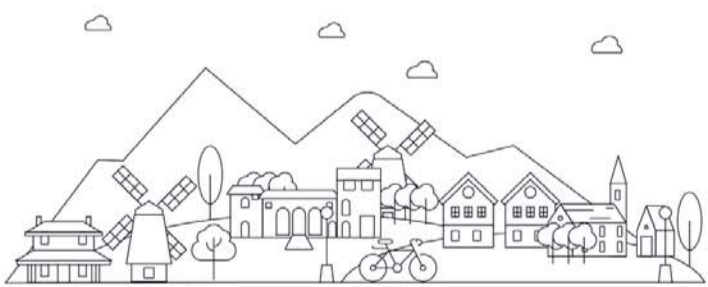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해도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9명(한화 선수 50명, 코칭 스태프 7명, 프런트 1명, LG 선수 1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11-13일 사이 유동적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1군 합류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한화 선수 2명도 대상에 포함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화 선수들이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퓨처스 리그 일정도 조정됐다.

KBO는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6일까지 한화와 LG가 속한 퓨처스 리그 북부리그 경기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다수의 선수가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 한화 퓨처스팀은 13일까지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격 이상의 가치,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프로방스 담양점 OPEN**

OPEN 10:00 ~ CLOSE 20:00

모든 음식 포장·배달 가능 | 061)382-3636 | 대형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레이나 골프장 입구 옆

